



프로폴리스제품, ‘항균작용’ 표기 삭제해야 하나

본협 오만균 이사

1. 항균작용 삭제는 군인에게 무장해제

프로폴리스의 주작용으로는 항균, 항염,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기할 수 있는 기능성 내용은 항균작용과 항산화작용뿐이다. 그런데 2007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때 프로폴리스의 항균작용은 과학적 검증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항산화작용만 그대로 둔다는 것이 식약청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식약청 원안대로 항균작용을 못 쓰게 된다면 군인이 무장해제당하는 것과 같다. 군인은 총을 갖고 있을 때 싸울 수 있는 군인이지만 총 없는 백 명의 군인은 총을 든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이런 글을 쓰자니 나 자신이 먼저 흥분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 그대로는 표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심호흡으로 억제하고 나서 글을 쓰려고 한다.

프로폴리스는 엄밀히 말하면 식품이 아니고 약이다. 동물이나 곤충이 먹이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면 이는 분명히 식품이다. 송충이에게는 솔잎이 먹이이고 누에는 뽕잎이 먹이다. 벌의 먹이는 화밀(花蜜)이라는 꿀과 화분(花粉, Bee Pollen)이다.

먹이가 되는 식품에는 식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5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고, 장기간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하나 먹으라고 할 때 서너 개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 식품이다.

벌이 나무의 진액을 갖고 오는 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질병예방과 바람막이, 벌집 견고용, 유해물질 도포(塗布) 등의 목적으로 갖고 온다.

그렇다면, 나무는 왜 진액을 내느냐 하는 것이다. 나무는 외피(外皮)에 상처를 입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최적의 온상(溫床)이 된다. 이것을 막으려면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물질이 필요하다. 이런 작용을 하는 물질이 나무의 진액이다. 식물에 항균작용을 하는 진액이 없었다면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진액에 단백질이나 당질이 들어 있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먹이가 될 수 있지만, 나무의 진액에는 이것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강력한 항생제 및 방부제 역할을 하는 가랑기나(Galangina)와 피노세모리나(Pinoceomorina) 같은 항균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이나 효소에 의해 항산화작용만 하는 물질이라면 프로폴리스의 효능기간은 1~2년, 길어야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프로폴리스의 효능은 5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된다.

필자는 남들이 버리는 프로폴리스를 양봉을 시작(1967년)하고부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았다. 2~3년간은 벌통 수가 많지 않아 모으지 못했지만 70년도부터는 매년 상당량을 모았다. 10년간 모아두었던 프로폴리스 원괴(原塊)를 80년도부터 사용했는데 위염에는 특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은 식품에서는 얻을 수 없고 약에서나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프로폴리스는 1g을 먹어야 할 때 1g을 먹어야지 4~5g을 먹어서는 안 된다. 몇 번 정도는 과용해도 괜찮지만 장기간 과용했을 때는 정력, 기력, 면역(免疫)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적당량을 사용했을 때는 정력, 기력, 면역만이 아니라 항균력까지 높여준다.

벌들은 항균력 있는 진액을 외면하지 않고 턱으로 뜯어 다리에 묻혀 갖고 와 여왕벌이 산란하기 전 벌집에 먼저 프로폴리스로 막을 입힌다. 프로폴리스로 막을 입히지 않은 벌집 안에서는 여왕벌이 산란하지 않는다.

단백질이나 당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벌이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라면 이는 분명히 식품이 아니고 약품이다.

만약 프로폴리스가 외국에서 식품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허가가 나올 수 없었던 물질이다.

2. 항균작용이 없다고 하면 모든 양봉인이 웃을 일

양봉인이 양봉장(養蜂場)에서 칼에 상처를 입는 일이 종종있다. 상처부위가 커서 봉합해야 할 정도이면 병원에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프로폴리스를 상처부위에 발라도 화농(化膿)은 결코 되지 않는다. 화농은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강한 항균작용만 있으면 상처는 화농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양봉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양봉인들이 다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 말하면 잔소리이다.

지난 10월 27일 대전에서 열렸던 제6회 자연의학 심포지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이용연구부에 계시는 조성기 박사님께서 발표한 '국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효능 검증' 논문의 화면 자료 중에서 성기에 파인 상처가 보기 흉할 정도였지만, 닳게 하는데는 현재 나와 있는 어떤 항생제보다 프로폴리스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과학적

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었다.

조 박사님께서는 심히 죄송한 말이지만, 양봉인들 사이에 성기에 발생한 대상포진(帶狀疱疹, herpes zoster)에는 프로폴리스 몇 번만 바르면 낫는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 되어있다.

치과의사가 풍치(風齒)에 프로폴리스를 사용해 보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양봉인들 가운데 무좀에 프로폴리스를 발라서 나았다는 경우가 있어서 필자도 시행해보았지만 바른 부위가 가려워서 몇 번 바르지 않고 포기했다. 그러나 발톱무좀 부위에는 발라도 가렵지가 않아 15회 정도 발랐더니 발톱무좀은 말끔히 없어졌다.

무좀균은 곰팡이 중에서도 지독하게 강한 균이다. 이 균이 프로폴리스에 의해 사멸된다는 것은 항균작용이 있어도 약한 작용이 아니고 강한 항균작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3. 항산화작용

의학상식이 없는 사람은 항산화작용이라고 하면 대단한 작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항균작용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작용이다. 항균작용이라는 내용은 표기하지 못하고 항산화작용만 표기 하라고 하는 것은 군인에게서 총은 빼앗고 작은 칼 하나만 들고 싸우라는 것과 같다.

우리 몸에 산소를 흡입했을 때 산소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약 2%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게 된다. 이것을 막는 데 유용한 작용을 하는 것이 항산화작용이다.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미네랄은 강약의 문제이지 거의가 항산화작용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중에서 항산화작용을 강하게 하는 비타민으로는 야구에서 팀 내 최고의 투수를 일컫는 에이스(ACE)처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고 미네랄에서는 셀레늄(selenium)이 있다. 녹즙이나 과일 껍질에도 항산화작용이 있다.

현미(玄米, unpolished rice)에도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26년째 현미(5분도)를 먹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큰 병 없이 잘 지내는 것 같다.

4. 항균작용

보사부(보건사회부)에서는 1990년도 초만 해도 프로폴리스는 식품도 될 수 없고 약도 될 수 없는 물질로 여기고 있었다.

필자는 1992년 9월호 「양봉계」지에 10년 뒤에는 프로폴리스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견(豫見)의 글을 200자 원고지 30매 분량으로 기고한 적이 있다. 효과가 있고 부작용

이 없으면 식품이든 약품이든 허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후 10년이 채 못된 2001년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가 나왔다.

항균작용이 과학적 증명이 안 된다고 항균작용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하려는 것은 깊은 연구 없이 쉽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필자는 영문(英文)을 모르기 때문에 프로폴리스에 대한 외국논문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중에는 분명히 항균작용을 증명할 만한 연구논문이 여러 편 나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는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몇 분 안 되지만 일본, 유럽, 북미, 남미 등에는 연구자들이 많아서 수백 편의 연구논문은 나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참여하시는 관계자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양봉인들은 프로폴리스가 항균작용을 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법 때문에 표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들로부터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수천이 되었을 때 보이지는 않는 그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을 때 1년도 못 가서 잘못 시행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논문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프로폴리스에 대한 진가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다. 국내 프로폴리스제품에 항균작용 표기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프로폴리스제품에서 항균작용을 빼고 항산화작용만 표기하도록 했을 때 수출국에서는 '너희 나라는 그렇게 유능한 인재도 없고,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학자도 없느냐?' 라고 빗대는 말이 벌써 들려오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플 정도이다.

